

하나의 목적위한 운동역량의 결집

◇80년대 통일전선운동과 현시기 제기되는 과제

이 상 우 (민주화운동 청년연합회원)

1. 머리말

사회의 변혁이 결코 프롤레타리아트 단독의 힘으로 성취될 수 없고 오직 다수 계급의 연합·협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다수자 혁명론」의 발상야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개진된 이후, 민족운동의 동력이 되는 계급운동의 위치와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문제가 더없이 「통일전선」의 문제제기되어 왔다. 특히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서 통일전선은 전술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통일전선에 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미구국통일전선, 혁명적 민주주의 전열론(ULB), 민족해방투쟁전선·민족통일전선 등이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이론은 그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정파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던 현실상황에 통일전선을 주도할 주체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운동 상황에서는 그 검증에 한계를 갖을 수 밖에 없다.

80년대 통일전선운동은 85년 민주운동협의회(이하 민협)와 민주통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의 통합으로 결성된 민주통일 운동연합(이하 민통연)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전두환정권이 4.13초청조치이후 범민주연합의 성격을 띠며 형성된 민주정국민운동본부(이하 민국본), 낮은 수준으로 통일전선의 명칭하에 편입된 전민연 등이 80년대 통일전선운동의 주요요 tố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할 바 있지만 80년대의 통일전선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통일전선운동이라기 보다는 통일전선을 지향하는 전선운동 혹은 연합

도 감당했다는 점 등이다.

2. 민통연, 전후 최초의 전국적 반합법 연합 운동조직

민통연은 1989년 1월 전민연의 결성과 함께 해소되기까지 약 3년 6개월의 기간동안, 계속되는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1985년 5월 광주투쟁, 구로동맹파업, 제주투쟁, 민주헌법쟁취투쟁과 5·31선투쟁,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문제 조작 규명투쟁 및 국민의 결성과 그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같은 민통연의 활동은 최초로 전국적 연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각 지역·부문의 고립분산적 활동을 극복하고 운동의 통일성과 집단적 규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반독재민주투쟁의 고양과 함께 자주·민주·통일의 전부분에 걸쳐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측 그 한계는 분명하였지만 민족통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이 독자성을 지닌 정치세력임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 8 >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세계, 대통령선거투쟁과정에서 선거혁명의 환상에 빠져들면서 보수야당과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여 운동세력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민통연 자체분열과 함께 대중적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최초의 전국적 반합법연합운동조직이었다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민통연은 이러한 한계와 오류로 인해 ▲87년 6월항쟁 이후 발전된 민중운동의 전술에 비해 두드러졌던 운동세력의 혼란과 결집력의 위약을 보다 높은 수준에

일 노동을 비롯 기층민중운동세력과 청년, 학생, 종교, 문화, 법조계의 민주인사 정치인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민주투쟁전선」의 창설과 이방의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국본은 비록 낮은 수준의 조직이었던 전 전국적 차원의 공동운동세로서 반독재투쟁을 선도하고 해방이후 최대의 「범민주연합전선」적 조직으로 6월항쟁 기간에 「상정계」로 두드러졌던 운동세력의 혼란과 결집력의 위약을 보다 높은 수준에

이같은 한계와 오류로 인해 국본은 민족적 단결의 위력을 자각하고 독재 대 민중간의 계급적 관계와 부분적 역전 상황의 전진과 이에 따른 민중의 급속한 전진과 자주성 확보의 기초를 마련한 역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투쟁의 성과와 보수야당에 헌납하는데 일조하였다. 「범민주연합전선」으로서의 국본의 결성과 그 활동경험은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민주투쟁의 방향과 그 계층을 지조조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으며 이 토대 위에서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켜 주었다.

4. 민족민주운동의 전국 단위로 전진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래 대중적 투쟁의 급속한 고양 속에서 기층의 통일전선운동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성장하는 민중운동의 성과를 반영한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통일전선운동의 모색이 요구되었다. 이는 국본강화, 비통연 강화, 민중운동연합전선의 확충으로 논의가 제기되었다. 1989년 1월21일 약 1년 6개월의 결성준비과

글심는 차례

1. 80년대 남한사회의 통사적고찰
2. 변화하는 주변정세와 남한사회의
3. 남한정세의 새로운 전개와 통치전선의 변화
- 5-1. 민중의 자각과 대중역량의 발전
- 5-2. 부운운동의 활성화와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 5-3. 80년대 전국적 전선의 시도와 이후전망
6. 90년대를 향한 민족민주운동의 몇가지 과제
7. (보론)80년대 북한사회의 전개

함의 이외에도 실천에 의한 검증운동 통해 사회적 통일을 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전민연의 현주소가 통일전선의 결야 밖에 이르러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완전한 사회적 통일과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으로 통일전선의 강령을 승인, 조직활동의 규율을 함양하고, 비교적 광범한 활동의 범위를 포괄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을 구성하는 각 지역·부문의 가맹단체들이 전민연으로 부합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관련하여 통일전선운동으로서 전민연 활동을 이끌어 나갈 주도세력이 부재하다는 점도 전민연의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운동은 대표하여 전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전민연에 참가하고 있지만 전국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진대회」에 대한 강령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결성된 「전진대회」의 전진 참가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농민운동에 있어서도 전국농민연

5. 현대계 통일전선 건설과 강화방안

80년대의 통일전선운동은 일정한 발전성을 관철시키면서 발전해왔다. 그것은 ▲ 낮은 수준의 공동투쟁과 부분적인 연합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공동투쟁과 전민연 연합으로 ▲ 연대조직의 건설에서 전회조직으로 ▲ 통일전선의 총체적 전략계획의 수립으로 ▲ 조직운동과 계급적 대중노선의 강화발전으로 ▲ 대중세력 독자성의 확대확고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통일전선운동은 이러한 발전성을 더욱 전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대중기반도 확충한 상태에서 기층의 사회적·이론적 통일도 매우 취약한 채 주도세력의 형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조건은 통일전선에 대한 논의가, 관념적에서 아닌 현실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통일전선건설을 구체화 시킬 것을 요구한다. 전민연의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투쟁의 구상으로 확고히 세워 나갈 때만이 통일전선건설의 전방은 밝아올 것이다.

알림

지난 528호 4면에 게재되었던 본지 기획특집 제7호 「80년대 부운운동의 활성화와 조직전진」의 필자, 우상호씨의 「전 「대학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점 필자와 독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80년대 조직들은 선거노선 논쟁 매몰, 명망가 중심 연합등의 오류를 보였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통일전선의 조직화 수준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민통연, 국본, 전민연 등을 통일전선운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향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통일전선의 원칙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전선의 대 원칙에 있어서 ▲ 계급·계층별 대중적 구성과 지역적으로 전국적인 구성체 있다는 점 ▲ 정치적·조직적 지도력과 투쟁을 일정정

도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통연의 활동은 몇가지 중대한 한계와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민통연의 과학적 정치노선의 부재와 함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통일전선 건설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과학성과 조직적 성격 통일성을 높이는 데 연합조직에

서 극복할 수 없는 조직임을 확인케 했고 ▲ 성장하는 민중운동과 긴밀히 결합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계층운동의 통합을 상징하는 정도도 자신의 역사적 기여를 한결성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민통연은 민중운동의 성장에 토대된 새로운 통일전선적 조직의 건설과 함께 발전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과도적 연합운동 조직」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

나지 못했던 것이다.

3. 국본, 해방이후 최대의 「범민주연합전선」

87년 6월 민주대투쟁은 통일전선적 운동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6월 민주항쟁에서 각계 각층의 민중들이 위대했던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계급적 성격과 지도의 방향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국본이라는 범계급·계층적이고 전국적인 조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본은 87년 6월25

그러나 6월 항쟁이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민중의 전술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투쟁의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발휘한 채 대통령선거에 대한 대안적 전술방향을 둘러싸고 자체분열을 노정하면서 점차 정치적 계급적 한계를 드러냈다. 국본 활동상의 한계와 오류는 대강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각계 각층이 망라된 전국적인 제계와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중심적으로 하는 기본투쟁의 조직적 결함이 부족했고 각 지역·부문의 실질적 대표성과 정치적 지도력이 취약했다.

둘째, 국본의 의사결정 기구가 자유주의자들과 그 영향력이 강한 명망가들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투쟁의 조직이 점차 우편향에 빠져 민중의 대의와 대중투쟁에 근간한 전진의 원칙보다는 무관심한 상층투쟁의 사안에 집중했다.

셋째, 이러한 점으로 인해 국본의 대중투쟁의 지도력이 매우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비폭력 평화투쟁」이라는 주요한 투쟁전술이 초기에는 대중투쟁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노동운동의 폭발적 전진, 투쟁형태의 발전과 다양화 요구되는 시점에서도 적극적 전술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소극적 투쟁형태의 전진만 고집했다.

정을 마치고 전국260여개 단체를 포괄하는 20여개 지역·부문단체로 이루어진 전민연이 출범하게 되었다.

전민연 결성의 의의는 첫째로 성장하는 민중운동과 투쟁을 전적으로 단결로 보다 높이는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전선적 형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때에 민통연이후 보다 확대된 민족민주운동의 전국적 단위로의 구축에 성공한 점이다. 둘째는 민통연 경우와 달리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의 조직적 참여확대 및 당파적 지도성이 일정한 정도 관철된 점이다. 이는 민통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일전선운동의 확대와 그 중심인 민족적 지도력 형성에 있어서도 일보전진이라 할 수 있다. 전민연 결성의 세 번째 의의는 독자적인 하나의 단결된 정치세력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존재를 가시적·대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전선구축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를 갖고 출범한 전민연은 1년 남짓한 실천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진적 결부시켜 살펴보면 첫째로 노동과 일상의 대립과 불일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전민연이 「반외세 반독재」라는 운동의 성격에 대한 극히 포괄적인

이 낙동지역연합이나 팔각 대륙위원회 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정치투쟁의 선봉대로 할 수 있는 전대협과 전국청년단체 대표자협의회(전청협) 등이 전민연에 참가한 데도 불구하고 있는점도 전민연 주체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민연의 결성이 전진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추상적 이론이 아닌 현존하는 저급한 전선설의 강화발전을 꾀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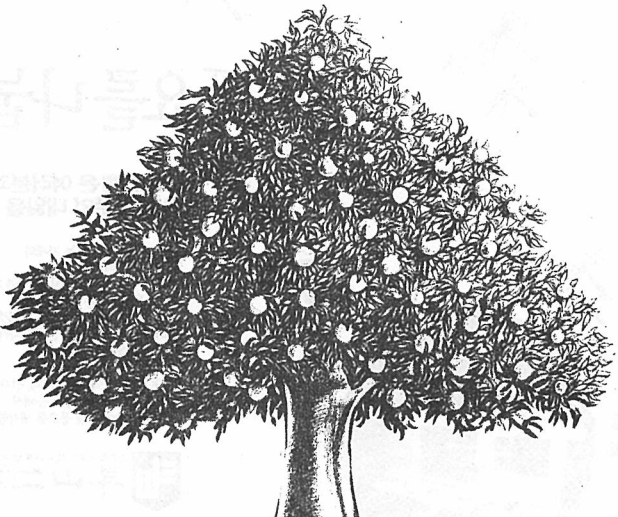


“江南種橘, 江北爲枳”

강남종橘, 강북위기...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이 동쪽으로 간다고 따라가지는 않으십니까? 친구가 서쪽으로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갈팡질팡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환경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핵공포의 시원지 '핵 발전소'

김해정
(공예 추방 운동연합 지도간사)

지난 10월25일 해남 군민의 날에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유인물 2만장이 해남군 핵추방운동협의회에 의해 배포되는 등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50여기의 핵발전소를 추가건설하겠다고 하자 30여기의 핵발전소 부지지역인 전남지역도 보성, 고흥, 신안, 장흥 등에서 반핵발전소 운동단체가 건설되어 핵발전소 건설저지를 외치고 있다.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88년 12월5일 핵발전소가 있는 강간고리, 강북월성, 전남영광 지역 주민의 동시다발 연대농민시위로 시작되어 12월12일 새 지역주민 4백여명이 상정, 한전본사에서 농성을 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또 핵폐기를 최후의 후처로 알려진 경희농림에서도 지난 3월 31일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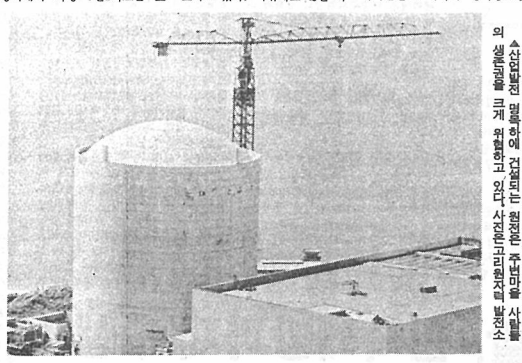
이렇게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저대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1백20km 떨어진 체르노빌에서 32년의 세계 원자력발전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약5만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31명이 사망했으며, 2천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또한 20만명이 정당한 방사선 질병과 관련된 질병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는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망 9천1백11명은 오

독에서도 방사능이 집중되었으며 4백50km² 거대한 체르노빌 지역에서는 수백명의 어린이가 한꺼번에 탈모현상을 일으켰다.

한편, 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샌트리니티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인구 1만명당 1백10의 비율로 암발병이 확인되고 있으며 드라비질미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미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10배이상의 암발병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많은 사

이 있는 노동자가 무(無)이온을 받으며 핵발전소 인근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가 기형아를 낳는 등 고리인근지역에 핵발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질병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방사성 가동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온수가 초당 70만리 바다로 쏟아져 나오며 대기중으로 방사성기체를 방출하고 있다. 실제로 고리핵발전소 해역의 방사성오염



고리핵발전소 건설중의 모습.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제공

원전, 미 핵독점정책에 정권이 결탁해 설치 방사능·핵폐기물 처리 기술없어 사고위험 커

자기일방을 갖고 있지 못한 원전. 미 핵독점정책에 정권이 결탁해 설치 방사능·핵폐기물 처리 기술없어 사고위험 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원전 폐로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전 오염정도를 낮추기 어렵다.

에 대처하기 위해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기는 15~20% 부족한 현실은 35~40%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 차이, 20%에 달하는 2백만kw를 잘 활용하고 정부와 한전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설비비용의 3분의 1 수준에 있는 수력·화력발전의 설비비용을 15%만 더하여도 가동한 전력공급면에서는 핵발전소를 더이상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학생에게 있어 사회 진출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진로를 따라 각계각층으로 진입하여 자주, 창조성을 발휘하고 대학생 생활에 익숙한 애국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념에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에 기여하는 것, 의 미한다.

그들의 지배구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 유해한 취업준비생 「면접수선」, 「ROTC출신 수대」, 「인성 및 적성검사 실시」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효성·한국화력·한일합성그룹등에 의해 대기업화를 보지 않고도 사회 진출과 면직으로 인성·적성·능력·창조성·창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합·불합격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때문에 핵발전소를 지어왔고 계속 건설하고 있는가?

5공직화 관제인문에서 조차 미국 다국적기업 핵발전소 수주와 관련 한국인 인원이 7만달러의 뇌물을 주었다고 보도한 정도도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뇌물수수나 다반사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65년이후 배출되어 시작한 졸업생전체 세대의 대량실업의 늪에 갇혀 있는 것, 의 미한다.

이런 65년이후 배출되어 시작한 졸업생전체 세대의 대량실업의 늪에 갇혀 있는 것, 의 미한다.

함께 풍요를 나누시다

두산그룹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우리 모두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와 기쁨이 이루어 내는 값. 그러나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함께 나누어 갖는 기쁨입니다. 기간산업 분야에 기업들의 힘을 집중해 나가고 소비재 분야에 기업들의 신뢰를 지켜가면서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그 풍요를 함께 나누는 일. 두산그룹은 무역, 건설, 기계, 전자, 출판, 식품, 농축산 분야 등에서 여러분과 함께 풍요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자

두산그룹

새활에 참여를 마친 후

새활에 참여를 마친 후

새활에 참여를 마친 후

“나는 네앞에 아직도 부끄러운 이메일 뿐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19주기를 맞이하여 어머니가 보내는 편지

태일아,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까. 이제 20년이만 세월이 다 지나가는 데(정확히는 19주기), 내가 죽음으로 부로던, 죽어서도 곁에 그리던 그 세상, 그 세상은 아직도 믿었는 데.....

태일이, 너도 알았지?
20년이만 세월, 볼 것, 못할 것 다 보면서 수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오로지 하나 끝없는 꿈을 추스려 너는 지하에서도 보고 있었지... 너로부터 걸 거처럼 그 파제, 도대체 내가 ‘못 다 이룬’일이 무언인지 모르는데, ‘어머니’... 내가 못 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세요. 그 한파다에 고고덕에 대답했던 너와의 마지막 약속이 이제 와서는 힘에 부치고 자꾸만 짐스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나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만 지냈는지, 무가치한 걸, 끝없는 꿈을 추스리고 어디로 갈까야 하는 데,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나는, 가사 책임자 못 할 말을 해야 하고, 책임도 못 지서 괴롭고, 화가 치밀면 며칠이고 멍때리고, 죽어 버리고 싶었다...에 전한 한 그날에는 ‘네’ 능력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사려내려 한 없이 미칠려고, 어머니에서 저처럼 너의 눈이 자꾸만 두려워지는구나.

그 캄캄했던 그때의 로동이 되살아나 울어야 했다.
그렇지, 너는 언제나 내겐 두세살의 오직 한 장남이었지. 그건 20년이 다 되는 지금에도 마찬가지였다. 살아있으면 마흔, 예들도 커서 중학교 다니는

을 길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나도 노동부, 정보부, 경찰 끄나 붙들기 모두 총동원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깐 자에 싹고 지하실로 끌고 가서는 내 숙부부터 일가친척 사돈에 팔은까지 주고 한터에 모두 도장을 찍어서는 내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구술 : 이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 ·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정리 : 박래근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사무국장)

“네가 마지막으로 남긴 「어머니 배가 고파요」라는 말은 아직도 내 가슴을 찢는구나”

난 내가 생각해도 무척 독특한 년인데, 어릴 때부터 별일 다 겪었어도 그까짓 것 하고 뭐 하러 열이 세고 장하고, 친구 같은 내가 죽었을 때도 내 하나 정신 못 차리던 광장이다 싶어 죽한 밤 먹고 울지도 않았다 너의 1주기를 맞이해서 비로소 쓸 수 있던 언어였다.....
너의 1주기 때 모란공원 표지에서 너 죽고 사람 앞에서 처음 울었다. 슬퍼하지 않아서 아니었지, 무덤 앞에 걸린 「전태일은 죽지 않았다. 전태일은 살아있다」라는 플래카드가 어떻게 그렇게도 심금을 울리었는지... 6대의 배가 못 해 애타게는 평화시절의 어린 노동자들을 볼 때 감동에 겨워 미소가 터졌고, 1년전의

“어머니...네가...고파요.”
어머니 배가 고팠는지, 너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 볼에 그슬린대로 그슬려 묻드려진 네 두 손끝을 꼬옥 두어 달라며 다신 물어 이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했다. 어릴때부터 애디 한탄해 배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키를 지어다녀 버스값 30원을 아껴 가지고 1원짜리 롤빵 30개를 사서 점심을 굶던 시대를 아예 나누어주기 바랬던 너, 한참 나이에 저도 주면서 제 배고름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니는 주러야 했을 것인데, 오죽

Essess

패션이코노미스트

점음에 맞는 패션, 점음에 맞는 가격

빌트모아는 신사복의 実用主義를 추구합니다.

신인사복 할당 할인으로 세 배 살수 있는 곳
당신은 옷을 살때 품질로 만족하시니까, 가격으로 만족하시니까?
비싸게 산건이런지 저지름 같은 허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복에 첫번째로 내딛는 후대적인 한 단 한복으로 친구와 만고, 데이트하고, 커피하고, 거가다 못까지 남겨져 되지만 이제 인도의 생활이 조금 합체되어 있죠. 이제, 에스에스세션의 기술이 품질을 보증하는 실용적인 가격의 빌트모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십시오!
맞춤복이기에 몸에 꼭 맞는 옷
몸에 꼭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저지름이 없습니다!
질문의 특성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패션도 당신의 점음에 딱 맞는 옷으로 선택하십시오. 이해하고 만족스럽게 옷을 입으십시오.

정통 정장에 현대감이 조화된 비즈니스를 위한 곳
당신은 패션에 대해 당당하게 자기견해를 펴낼수 있습니까?
장장의 기복이라고 한다면 정통 스타일의 브리시 모드 - 정통 스타일에 활동성을 가미한 아메리칸 모드 - 몇몇 개성을 한층 살린 만리안 모드 - 빌트모아는 정장의 세가지 스타일을 가장 우리의 문화와 격식에 맞게 조화시킨 현대 감각의 새로운 정장입니다.
한사람도 갖지 않은 개성, 그러나 한사람도 빠지지 않아 만족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즈니스 스타, 바로 빌트모아입니다.

빌트모아 BUILT MORE

11월 7일 (화요일)

11월 14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8일 (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12월 26일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1월 9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1월 23일 (화요일)

1월 30일 (화요일)

2월 6일 (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0일 (화요일)

2월 27일 (화요일)

3월 5일 (화요일)

3월 12일 (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6일 (화요일)

4월 2일 (화요일)

4월 9일 (화요일)

4월 16일 (화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30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5월 21일 (화요일)

5월 28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6월 11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6월 25일 (화요일)

7월 2일 (화요일)

7월 9일 (화요일)

7월 16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

7월 30일 (화요일)

8월 6일 (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

8월 27일 (화요일)

9월 3일 (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9월 24일 (화요일)

9월 30일 (화요일)

10월 7일 (화요일)

10월 14일 (화요일)

10월 21일 (화요일)

10월 28일 (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11일 (화요일)

11월 18일 (화요일)

11월 25일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9일 (화요일)

12월 16일 (화요일)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1월 6일 (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월 20일 (화요일)

1월 27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2월 17일 (화요일)

2월 24일 (화요일)

2월 31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3월 14일 (화요일)

3월 21일 (화요일)

3월 28일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4월 11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5월 2일 (화요일)

5월 9일 (화요일)

5월 16일 (화요일)

5월 23일 (화요일)

5월 30일 (화요일)

6월 6일 (화요일)

6월 13일 (화요일)

6월 20일 (화요일)

6월 27일 (화요일)

7월 4일 (화요일)

7월 11일 (화요일)

7월 18일 (화요일)

7월 25일 (화요일)

8월 1일 (화요일)

8월 8일 (화요일)

8월 15일 (화요일)

8월 22일 (화요일)

8월 29일 (화요일)

9월 5일 (화요일)

9월 12일 (화요일)

9월 19일 (화요일)

9월 26일 (화요일)

10월 3일 (화요일)

10월 10일 (화요일)

10월 17일 (화요일)

10월 24일 (화요일)

10월 31일 (화요일)

11월 7일 (화요일)

11월 14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8일 (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12월 26일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1월 9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1월 23일 (화요일)

1월 30일 (화요일)

2월 6일 (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0일 (화요일)

2월 27일 (화요일)

3월 5일 (화요일)

3월 12일 (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6일 (화요일)

4월 2일 (화요일)

4월 9일 (화요일)

4월 16일 (화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30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5월 21일 (화요일)

5월 28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6월 11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6월 25일 (화요일)

7월 2일 (화요일)

7월 9일 (화요일)

7월 16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

7월 30일 (화요일)

8월 6일 (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

8월 27일 (화요일)

9월 3일 (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9월 24일 (화요일)

9월 30일 (화요일)

10월 7일 (화요일)

10월 14일 (화요일)

10월 21일 (화요일)

10월 28일 (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11일 (화요일)

11월 18일 (화요일)

11월 25일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9일 (화요일)

12월 16일 (화요일)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1월 6일 (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월 20일 (화요일)

1월 27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2월 17일 (화요일)

2월 24일 (화요일)

2월 31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3월 14일 (화요일)

3월 21일 (화요일)

3월 28일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4월 11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5월 2일 (화요일)

5월 9일 (화요일)

5월 16일 (화요일)

5월 23일 (화요일)

5월 30일 (화요일)

6월 6일 (화요일)

6월 13일 (화요일)

6월 20일 (화요일)

6월 27일 (화요일)

7월 4일 (화요일)

7월 11일 (화요일)

7월 18일 (화요일)

7월 25일 (화요일)

8월 1일 (화요일)

8월 8일 (화요일)

8월 15일 (화요일)

8월 22일 (화요일)

8월 29일 (화요일)

9월 5일 (화요일)

9월 12일 (화요일)

9월 19일 (화요일)

9월 26일 (화요일)

10월 3일 (화요일)

10월 10일 (화요일)

10월 17일 (화요일)

10월 24일 (화요일)

10월 31일 (화요일)

11월 7일 (화요일)

11월 14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8일 (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12월 26일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1월 9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1월 23일 (화요일)

1월 30일 (화요일)

2월 6일 (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0일 (화요일)

2월 27일 (화요일)

3월 5일 (화요일)

3월 12일 (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6일 (화요일)

4월 2일 (화요일)

4월 9일 (화요일)

4월 16일 (화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30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5월 21일 (화요일)

5월 28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6월 11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6월 25일 (화요일)

7월 2일 (화요일)

7월 9일 (화요일)

7월 16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

7월 30일 (화요일)

8월 6일 (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

8월 27일 (화요일)

9월 3일 (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9월 24일 (화요일)

9월 30일 (화요일)

10월 7일 (화요일)

10월 14일 (화요일)

10월 21일 (화요일)

10월 28일 (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11일 (화요일)

11월 18일 (화요일)

11월 25일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9일 (화요일)

12월 16일 (화요일)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1월 6일 (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월 20일 (화요일)

1월 27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2월 17일 (화요일)

2월 24일 (화요일)

2월 31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3월 14일 (화요일)

3월 21일 (화요일)

3월 28일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4월 11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5월 2일 (화요일)

5월 9일 (화요일)

5월 16일 (화요일)

5월 23일 (화요일)

5월 30일 (화요일)

6월 6일 (화요일)

6월 13일 (화요일)

6월 20일 (화요일)

6월 27일 (화요일)

7월 4일 (화요일)

7월 11일 (화요일)

7월 18일 (화요일)

7월 25일 (화요일)

8월 1일 (화요일)

8월 8일 (화요일)

8월 15일 (화요일)

8월 22일 (화요일)

8월 29일 (화요일)

9월 5일 (화요일)

9월 12일 (화요일)

9월 19일 (화요일)

9월 26일 (화요일)

10월 3일 (화요일)

10월 10일 (화요일)

10월 17일 (화요일)

10월 24일 (화요일)

10월 31일 (화요일)

11월 7일 (화요일)

11월 14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8일 (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12월 26일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1월 9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1월 23일 (화요일)

1월 30일 (화요일)

2월 6일 (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0일 (화요일)

2월 27일 (화요일)

3월 5일 (화요일)

3월 12일 (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6일 (화요일)

4월 2일 (화요일)

4월 9일 (화요일)

4월 16일 (화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30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5월 21일 (화요일)

5월 28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6월 11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6월 25일 (화요일)

7월 2일 (화요일)

7월 9일 (화요일)

7월 16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

7월 30일 (화요일)

8월 6일 (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

8월 27일 (화요일)

9월 3일 (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9월 24일 (화요일)

9월 30일 (화요일)

10월 7일 (화요일)

10월 14일 (화요일)

10월 21일 (화요일)

10월 28일 (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11일 (화요일)

11월 18일 (화요일)

11월 25일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9일 (화요일)

12월 16일 (화요일)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1월 6일 (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월 20일 (화요일)

1월 27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2월 17일 (화요일)

2월 24일 (화요일)

2월 31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3월 14일 (화요일)

3월 21일 (화요일)

3월 28일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4월 11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5월 2일 (화요일)

5월 9일 (화요일)

5월 16일 (화요일)

5월 23일 (화요일)

5월 30일 (화요일)

6월 6일 (화요일)

6월 13일 (화요일)

6월 20일 (화요일)

6월 27일 (화요일)

7월 4일 (화요일)

7월 11일 (화요일)

7월 18일 (화요일)

7월 25일 (화요일)

8월 1일 (화요일)

8월 8일 (화요일)

8월 15일 (화요일)

8월 22일 (화요일)

8월 29일 (화요일)

9월 5일 (화요일)

9월 12일 (화요일)

9월 19일 (화요일)

9월 26일 (화요일)

10월 3일 (화요일)

10월 10일 (화요일)

10월 17일 (화요일)

10월 24일 (화요일)

10월 31일 (화요일)

11월 7일 (화요일)

11월 14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8일 (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12월 26일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1월 9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1월 23일 (화요일)

1월 30일 (화요일)

2월 6일 (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0일 (화요일)

2월 27일 (화요일)

3월 5일 (화요일)

3월 12일 (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6일 (화요일)

4월 2일 (화요일)

4월 9일 (화요일)

4월 16일 (화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30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5월 21일 (화요일)

5월 28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6월 11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6월 25일 (화요일)

7월 2일 (화요일)

7월 9일 (화요일)

7월 16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

7월 30일 (화요일)

8월 6일 (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

8월 27일 (화요일)

9월 3일 (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9월 24일 (화요일)

9월 30일 (화요일)

10월 7일 (화요일)

10월 14일 (화요일)

10월 21일 (화요일)

10월 28일 (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11일 (화요일)

11월 18일 (화요일)

11월 25일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9일 (화요일)

12월 16일 (화요일)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1월 6일 (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월 20일 (화요일)

1월 27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2월 17일 (화요일)

2월 24일 (화요일)

2월 31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3월 14일 (화요일)

3월 21일 (화요일)

3월 28일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4월 11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5월 2일 (화요일)

5월 9일 (화요일)

5월 16일 (화요일)

5월 23일 (화요일)

5월 30일 (화요일)

6월 6일 (화요일)

6월 13일 (화요일)

6월 20일 (화요일)

6월 27일 (화요일)

7월 4일 (화요일)

7월 11일 (화요일)

7월 18일 (화요일)

7월 25일 (화요일)

8월 1일 (화요일)

8월 8일 (화요일)

8월 15일 (화요일)

8월 22일 (화요일)

8월 29일 (화요일)

9월 5일 (화요일)

9월 12일 (화요일)

9월 19일 (화요일)

9월 26일 (화요일)

10월 3일 (화요일)

10월 10일 (화요일)

10월 17일 (화요일)

10월 24일 (화요일)

10월 31일 (화요일)

11월 7일 (화요일)

11월 14일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11월 28일 (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12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

12월 26일 (화요일)

1월 2일 (화요일)

1월 9일 (화요일)

1월 16일 (화요일)

1월 23일 (화요일)

1월 30일 (화요일)

2월 6일 (화요일)

2월 13일 (화요일)

2월 20일 (화요일)

2월 27일 (화요일)

3월 5일 (화요일)

3월 12일 (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6일 (화요일)

4월 2일 (화요일)

4월 9일 (화요일)

4월 16일 (화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30일 (화요일)

5월 7일 (화요일)

5월 14일 (화요일)

5월 21일 (화요일)

5월 28일 (화요일)

6월 4일 (화요일)

6월 11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6월 25일 (화요일)

7월 2일 (화요일)

7월 9일 (화요일)

7월 16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

7월 30일 (화요일)

8월 6일 (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0일 (화요일)

8월 27일 (화요일)

9월 3일 (화요일)

9월 10일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9월 24일 (화요일)

9월 30일 (화요일)

10월 7일 (화요일)

10월 14일 (화요일)

10월 21일 (화요일)

10월 28일 (화요일)

11월 4일 (화요일)

11월 11일 (화요일)

11월 18일 (화요일)

11월 25일 (화요일)

12월 2일 (화요일)

12월 9일 (화요일)

12월 16일 (화요일)

12월 23일 (화요일)

12월 30일 (화요일)

1월 6일 (화요일)

1월 13일 (화요일)

1월 20일 (화요일)

1월 27일 (화요일)

2월 3일 (화요일)

2월 10일 (화요일)

2월 17일 (화요일)

2월 24일 (화요일)

2월 31일 (화요일)

3월 7일 (화요일)

3월 14일 (화요일)

3월 21일 (화요일)

3월 28일 (화요일)

4월 4일 (화요일)

4월 11일 (화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대학원론 탄압

지난 5월 6일 전국 35개 대학 총학생회를 소집한 문교부에서는 「대학원론·교과제 대학원론」을 지도지침을 발표하였고 편지주체적인 일체화 학생대별 선거주도권 지시하였다. 그리고 언론내용에 반비전통, 좌익논리의 문제제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5·6조치가 있은지 4일만인 지난 5월 10일, 조선대 「민주조선」, 교지편집장 이영규 교가 정주 44호원지에서 반사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민주조선」 창간호에 「북한의 혁명발전」 등의 논문을 실은, 제2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되었다. 5월 30일 세종대 교지인 「세종」18호가 계속도중 평양출판 관련자료를 공문당국에 의해 불발수배되었고 편집장 최호준(도청경정 3)이 연행, 조사를 받았으며, 편집장신문은 창간기념호를 제작하던중 평양출판 관련 기기사와 북한 관련논, 편집장의 편집등에 문제가 되어 학교측의 사전검열 과정에서 게재불가압박을 받았으나 인쇄강행 편집장 박진성(수학3)을 비롯 4명의 부장이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 7조 5항위반 혐의로 편집장이 구속되었다. 6월 22일 한양대 앞에서 자대기원 공동기공인 송문준(의대대 마인1·3)이 불심검문도중 연행, 평양출판관련자료를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다. 7월 1일 부산공업대 진상사건편집장 황성우(기계공학·3)이 평양출판관련기사로 구속되고 그를 연행하러갔던 취재부장 정국준(건축·2)이 경찰서에서 구속되었다. 중앙정국 「주사화 혁명」공로한 작부 제2대교지 「한반」

편집장이 수배를 받던중 7월중순에 정자, 구속되었고, 7월 23일, 성대신문사 편집장 김계범(사학3)을 비롯한 4명의 기자가 상에서 수배를 마치고 학교비서로 돌아오던중 동서울을 제2·3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6월 6일 인자 출판사 발행처로부터 서울시장에의 내부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본보의 경우, 「한국정경-미국은 이념을 계획

대중선전 선동적 역할 위축시킴으로 학생운동 탄압하려는 의도

하고 있었다.라는 글을 기고한 고려대 대학원생 한진수씨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7월 25일 새벽 3시경 학내에 난입한 30여명의 경찰에 의해 본보 편집장 문정환(마인1·3)이 불발수배되었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부산의 대 신문사 편집장 강동민(중국어·3)과 부산수산대편집장이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 7조 5항위반 혐의로 편집장이 구속되었다. 6월 22일 한양대 앞에서 자대기원 공동기공인 송문준(의대대 마인1·3)이 불심검문도중 연행, 평양출판관련자료를 문제

「반미」관련 기사와 평양출판기사로 구속되었고 인쇄대 신문사 편집장 진만성(사학3)을 비롯한 4명의 기자가 상에서 수배를 마치고 학교비서로 돌아오던중 동서울을 제2·3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6월 6일 인자 출판사 발행처로부터 서울시장에의 내부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본보의 경우, 「한국정경-미국은 이념을 계획

대중선전 선동적 역할 위축시킴으로 학생운동 탄압하려는 의도

하고 있었다.라는 글을 기고한 고려대 대학원생 한진수씨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7월 25일 새벽 3시경 학내에 난입한 30여명의 경찰에 의해 본보 편집장 문정환(마인1·3)이 불발수배되었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부산의 대 신문사 편집장 강동민(중국어·3)과 부산수산대편집장이 연행되었고 국가보안법 7조 5항위반 혐의로 편집장이 구속되었다. 6월 22일 한양대 앞에서 자대기원 공동기공인 송문준(의대대 마인1·3)이 불심검문도중 연행, 평양출판관련자료를 문제

세력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민주세력을 각개격파하려는 의도이다. 즉 대학원론을 제도적 탄압에서 그 활동영역을 학생운동의 의식화·조직화에 국한시켜가려는 것이며 또한 「보-혁 대결」의 구도를 대학사회에서도 조성시키려는 것이 같은 대학원론을 독자들에게서 유리하도록, 지금과 같은 성격의 대학원론자료를 발간시키겠다는 선전공고의 의미이다.

87년 6월 학생, 88년 통일운동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임의의 민주주의를 정서하는 데 주동적인 임무를 수행한 대학원론에 대한 탄압은 전연한 것이고 비판적인 대학원의 특성을 통째로 없애려는 의도이고 단순한 학원주의, 학원주의주의로 대학원론의 정격을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문교부장·총의대선전 등으로 조성된 공안정국하에서 이념의 전향한 자·민주·통일을 갈망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점점 전면화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선동적으로 민주운동운동을 이끌었던 학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회간부를 구속시켜 그 등 직적인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선전, 학내비리척 등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학원자주화」사업에도 탄압이 가시되고 있다.

특히 학생회선전의 경우는 학생회 선전의 세력이 아닌 학교와 정권간의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2총장」이라는 오지못할 아니 비국적인 사태가 발생된 경기대·세종대라는 물론 민주적정국이라는 이유하나라도 해임공고를 받은 조선대총 학원자주

학원자주화 탄압

화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총장」이라는 대학의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 2명의 총장을 가진 세종대 경기대의 경우는 각각 88년 11월과 12월에 총장을 선출하였으나 문교부는 세종대에게 이중총장에 대한 승인거부와 해임을 요구하였고 경기대에서는 문교부를 통해 임은 재단측이 자의적으로 나민수총장의 해임을 결정하였다.

이후 세종대의 재단은 전대학원의 지지를 선출된 이중총장을 해임하고 박종규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문교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관련 세종대의 학내구성원은 신임총장의 불법을 선언하고 지난달에는 오성숙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하여 총장직선제헌원에 대한 전대학원의 여망을 보여주었다.

경기대는 세종대에 비하여 더욱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재단측이 나용수를 해임한 후 박종규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라는 내부결정이 이루어져 계속 임무를 보고있고 박종규교수도 이에 반발 드르면서 정국준이 계속 교무부를 보고하고 학생

단속의 독단적 처사에 반발 일주일간 휴강을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연일집회와 함께 수업 거부 등으로 이에 동향하여 전대학원의 단결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탄압은 자율화 역행, 학원 탄압

으로서려는 전 대학원에 대한 탄압을 피고있다. 인사 안판하고 학생을 문물이나 구태하고 늙은 노교수를 포함 전교원 운동장조해의 상사 파동 그야말로 고등학도의 학도운동의 비민주주의 학생들은 수월, 능숙, 능숙 등으로 박철을총장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이때 개혁한 기구가 개정신설의 학교 발전정부를 위한 「대학자주화법」의 의의,이로 그해 총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이문명총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선대는 이중총장이 계속 교무부를 보고하고 학생

학부로, 동문차원에서 해임요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사학재단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부정부패와 관련 지난 8월 총장구속이라는 사태까지 있었던 동국대는 당시 행정을 잃은 지사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고려대, 우석대의 부정부패자가 적발됐음에 총장 회의를 열어 「총장님을 지키자」라고 운동

구속은 본래 민주화되고 있는 동국대에 대한 탄압이었다. 이와관련 동국대에서는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직원노동자, 민주운동등을 포함한 「동국의 자주화」를 위한 공동개혁위원회, 불, 건설, 학원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중이다.

이와 같이 「총장」부문에 관한 문교부의 대학탄압은 그것이 다른 총장직선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대학내 구성원이 「민주총장」을 구성으로 선택되고 단결되는 것을 막고 비록 운동의 한계가 되었지만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



공안정국의 학원탄압을 점검한다

프락치공작 통한 탄압

「국민여러분, 기저는 저는 지금 신변을 보호받지 못한 가운데 안거부 직책에 걸려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국민을 편입합니다. 안거부는 지금 저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유서를 쓰는 즉시 신변과 가족에 대해 보호를 받겠습니다. ...이 글은 지난날 21일 한양대에서 프락치 활동을 해오던 황성진(19)군이 기독교 회관에서 양심선언을 한 뒤 아버지에게 경찰

23일 공안정국은 「양심선언은 학생들의 특혜에 의한 허위사실」이라는 반박발표를 했다. 이는 이 사건을 조작,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몰아 사회여론을 통해 학원을 탄압하고자 하는 책동에 이 사건의 전후를 생각할때 불합리하게 드러난다. 즉 황성이 기독교회관에 도착하기 전 기관원의 출현으로 동향하던 학생과 해이하게도 도망갈 수 있었지만 먼저 기독교 회관에 도착해 다녔다 다시 만나서 양심선언을

동양공전 설립준공의 상해치사 사건으로 프락치문제를 둘러싼 학내의 크고 작은 잡음이 가장 비국적인 형태로 나타난 사례이다. 지난 7월에 밝혀진 부산수산대 프락치사건(25. 국문3 후학) 사건은 황금, 설교과는 다르게 학생운동의 핵심세력에 침투한 프락치사건으로 지난 85년 서예대의 프락치 배정된 사건이 부각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부울출판회의 보관이 지켜지지 않고, 임원들의 수배와 소지한 물건이 자주 분실되었다가 영동한 곳에서 발견되는 등 조작의 프락치 사실이 조연화되자 국민에게 임원들을 표시해낸 끝에 김태수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청문회적 심문을 통해 김태수군의 진술을 얻어냄으로써 밝혀졌다.

이렇듯 학원 깊숙이 침투한 반민족적 프락치 공작은 학생들의 불신증조를 만연시켜 학생들간의 신뢰와 단합 파괴정권의 도덕성·정권유지 파산 선고

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다가올 위협의 때문에 극도로 불안한 심정에서 국민과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쓴 도움요청서-본인은 「유서」라고 칭함-의 일부이다. 이글을 쓴 황성은 2시간후에 아버지를 앞세운 기린원로 보이는 7~8명의 사람들에게 연행되어갔고,

한편, 양심선언후 2시간 동안 잡혀있었는데 그때도 다시 돌아오는, 기저지신 폭행에 의한 총요되었다면 발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들이 그것이다.

사전에 큰 파문을 일으키며 제도언론을 통해 학생 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끼친

생들간의 신뢰와 단합을 깨뜨리는 커다란 요인으로 학원탄압의 극약수단한 사례이다. 더욱이 안거부, 보안사에 의한 학내정보 수집활동을 강요받은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 정권의 비도덕성은 더욱더 우리들 본분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국민대생 김경환(국문4)의 생애경험을 통한 프락치강요이며, 이외에도 서경대, 이대에서의 프락치 강요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처단「8월」30일 자택에서 안거부 직책에 불발연행 당한뒤 프락치 강요를 받았다는 연세대 본과대 부학생회장 김경태(사학4)는 남산공수사본과로 추측되는 곳에서 31일밤 10시에 풀려나는데까지 국가보안법은 해방후 한국군 중의 의사와는 상반없이 미국군 그 하위조직인 부산반동세력의 이해에 따라서 강제이행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법적적 표현으로 형법적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그 자체의 제정(1953. 9. 18)보다 제정(1948. 12. 1)이 제정되어 「반공과」불안이라는 성취(?)을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자의적인 처벌을 가하였다. 이는 1964년 「헌법」, 1968년 「통치법」, 1979년 「남민전」등의 「간첩단」 조차사건들을 만든데서

지난 4월 146차 국회특검회의에서 개정되는 제2호는 탄압을 벌여오던 반민주제도압박들이-국가보안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더욱 위기로 미워진 뒤 이를 이용한 학원탄압이 극악하게 자행되고 있고, 5·3총선의 사태를 빌미로 「화원법」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설립준공 치사사건을 계기로 「학내폭력 종합대책」등을 마련하여 6공의 5공으로의, 위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헌법위에 있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해방후 한국군 중의 의사와는 상반없이 미국군 그 하위조직인 부산반동세력의 이해에 따라서 강제이행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법적적 표현으로 형법적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그 자체의 제정(1953. 9. 18)보다 제정(1948. 12. 1)이 제정되어 「반공과」불안이라는 성취(?)을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자의적인 처벌을 가하였다. 이는 1964년 「헌법」, 1968년 「통치법」, 1979년 「남민전」등의 「간첩단」 조차사건들을 만든데서

반민주 악법통한 탄압

추진을 해오던 이법안은 여론에 밀려 부의안이 오다가 정권의 계획된 조작사건임이 확실시되는 5·3총선의대사태를 계기로 여론을 등에 업고 5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7일 한 탄압

II. 화원법 처벌법에 의

이후 9월 30일 서울시경이 화원사수·재권리 획득 위해서도 반민주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국보법에는 범죄제정으로는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보다도 상위에 군림하면서 헌법 원리를 보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의 준엄과 거지」(10조), 「신체의 자유」(12조)등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88년부터 입법 산하정관에서는 「화원법」사범 근절지시,를 내리고 10월 16일 제9대 39명, 홍대 19명, 연세 19명, 1박80여명에게 출석요구를 보내는등 주체적으로 출석임을 나타내었다. 10월 16일자 화원법으로 구속된 43명, 입건·육신 40여명등 총296명(명)이 화원법 처벌법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법제정의 후속으로 법이 함의되어 자행되어지는 제도적 폭력을 깨뜨리고, 학원사수과 경제적 제재를 뒷받침 위 해서도 반민주악법은 철폐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철폐는 탄압에 물려있음이 싸워나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본회의 경우에도 신효석(상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대기원 공동기획광고2 고 이 내찰원사 사인친상유범

제이 2월 이후

이제 우리는 단정한다. 타살이라고.

▲거문도까지 동행한 안거부직권
▲부검시 나타난 7군대의 타박상
▲발견되지 않은 유류품(상, 안경, 시계, 휴대)
▲1.4m깊이의 물속에서 실족사

새 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포—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마지막 겨울을 위하여—서간문

친구여 기억하게나

윤설현
(동양·일어)

우리 몸을 이 땅에 태우고
우리 정신을 세운 역사에
터잡았기에 우리는 온몸 온정신으로
그리고 지금은 아직도 「구속중」 「수배중」이라는 파소의
관사의 내리치는 추위의 한가운데서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다.
세월은 작고 아름다운
가을을 가둬두고 있는 듯이
눈을 뜨고 보니...

리산의 산행을 제안했을 때,
그러나 선배들의 구속으로 인
한 후유증으로 우리의 「겨울산행」은
취소되었고, 이듬해 6월
방학의 위대한 성취였던 경동성
당무경중 갑작스런 자매의 구속

우리의 결의는 술자리에서 떠돌
았던 순진한(?) 바램으로 끝나
버렸다.
통상으로 책이 묻혀진 발자
국을 자르며 통풍 히터다리와
두발 내 다리도 천왕봉까지 쫓



세월이 가고 가을도 겨울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피부를
스치는 바람이 차다. 양산과
나루까지를 바라보며, 낙엽이
저토록 학을 날려다 주었다
의 얼굴을 떠올리며, 낙엽이 저
토록도 날아다니는 나무는 세월을
가다듬어 자라는 비단으로 새
긴 교정의 빈자리에 서 있는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 때가 1학년 겨울이었던지,
최강의 의사와 반역의 장군에
맞서 싸운 조국의 땅, 자랑스런
아들 딸들의 살아있는 무덤 「지

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으로 등
반을 못했었다.
작년 겨울엔 23대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이었던 때문에 역시
겨울산행은 포기했다. 그리고 올
겨울에도 「지리산」에서 운동과
대학4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
로운 전율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90년도의 여정을 얻어오자면

저 오름에, 끝내는 다가가서
이별의 충구앞에 우뚝 서서
마지막 만사를 정리했던 선배들의
이별의 외침, 민족의 땅!
친구여 기억하게나.
분단을 반대하다 쓰러진 사람
몇몇이요, 조국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처사 죽어간 사람 몇몇
이전만, 선배들의 피마흔 한

반도는 분단 45년의 역사에서
반역의 무리들이 더욱 살해되고
광란하는 곳이 되어 버렸고 우리
모두가 싸우고 패배하고야 할
치열한 전진이라네. 그리고 이제
지리산은 관광길 눈코로
의 산이 아니라 4천만 민중과
미국세력의 싸움이 계속되는 반
도 남단부정의 전진이라네.

이름 모를 꽃봉오리로 철마다
피어난 선배들의 푸른 분단과
통일의 치열한 전진, 애국과 패
국의 절대 격전지였던 지리산에
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전진 곳곳에서 만났던 아나, 자
네가 또 하나의 전진 감옥에서,
또는 이곳 교정에서 일한 투
쟁을 전개하듯이.

“자네가 떠난 교
정의 빈자리에서
우린 다시 새 봄
을 부르려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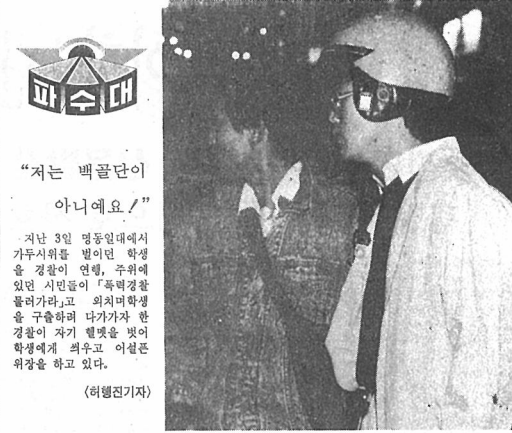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아는 겨울, 산자리의 호수
(평화)의 바다 「지리산」, 그 큰
가슴속에서 우리의 뜻을 「겨
울산행」의 꿈은 실현되었지, 우리
조국이 해방되는 그 날, 우리
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가
세.

저주는 80년대와 함께 우리가
지내왔던 대학생활의 깊은 의미
를 되새기며, 승리하는 90년대
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겠다.
끝으로 자네의 싸움터에서,
또 나의 싸움터에서 다가온 전
사의 후손을 노래부르며 글을
맺고자 하네.

나는 저 산만 보면
지금도 흐르는 그 눈은 피
내 가슴에 살아 솟는다.
불망이 일어난 전사의 조국
사람이
깊은 허리에 또 울부짖는
가슴에도
덧없이 흐르는 산하
저 산에도 발걸음 굽어 굽어
돌리
가슴 깊이 스며드는 사람
나는 저 산만 보면 소리 들린다

월빛은 저 산만 보면
지금도 들리는 별자리 소리
내 가슴에 살아 들린다.
통일전군 45년 11월

“마지막 겨울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모았던 글들 중
학우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글들을 골라 이 한페이지
에 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가
다에 소중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저는 백골단이
아니예요!”

지난 3일 평동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던 학생
을 경찰이 연행, 추위에
있던 시민들이 「특검경찰
를 물려라!」고 외치며 학생
을 구출하려 다가갔다. 한
학생이 자기 팔뚝을 보여
학생에게 싸우고 아픈
상황을 하고 있다.

(허영진기자)

◇마지막 겨울을 위하여—수필

인간사랑의 동의어는 “투쟁”

권명희
(서양·노어3)

세월이 주는 가장 무거운 양
금은 추억이다.
취미 뇌질(腦質)상 기억력이
현저히 나쁜 나인 한때는, 세월
의 흐름이 「선명」한데, 「이
기」 전, 추위 정도로 흐르는 건
내 나쁜 기억력이 가혹도를
붙이는 무시 못할 힘이다.
꽤 길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사춘기, 어슬렁은 반항과 천박
한 논리로 우물쭈문 시절, 까짜
와 이문열의 작품만 보면 비참
할 정도로 단박하고 해비탈에
머저, 것발과 팔뚝이 유독
헤드론을 달고 다니던 어린시절

과, 완벽한 「자살미수」를 꿈꾸
며 사보르토르 도망치고자 했던
평정하고 비평했던 삼수생 시절,
이 시대 가장 가슴속, 그러나
가장 가슴속 전리는 투쟁이다
고 읊먹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자 했던 대학시절.....

나의 80년대는 이렇듯 강황
하고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추
억이라 말하는」 치열했던 투박
소리는 강대하고 삶의 보리마다
다 예각으로 비호인 감동들도
짜놓았다 싶은 채 이제, 절절한
남아있을 뿐이다.

혹자는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
라 말하지만 내게 있어 추억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다.
급변해 갔던 정치경제체제 나
는 저쪽에도 변해갔고 내 개인

의 80년대는 침묵의 과정과 눈
을 떠가는 과정의 반복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군분투
고 괴로웠던 역사이다.
그래서 더욱 부끄러운가 보
다.

남몰래 신났던 일 몇개를
늘이고 행복만 표정으로 최고
해 보지도 못하는 채 너저분한
과거들을 먼저 흘리며 커내
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년이면 희망한 90년대가 열
린다고 해서 설날 아침 찬란한
떡이 밥상에 올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단순한 미래는 이렇게
도 굴러간다. 삶의 한 가운데
우뚝 서서 지난시절 잊었던 것
들을 바라보며, 젖은 옷을 말

리는 작업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가치있는 일일 것이라
다.

어느 불꽃없는 기억일지라도
현세의 나를 만든 당당한 사
건들은 80년대에 몰려있기 때문
이다. 특히 80년대 후반에 있
던 대학시절은 내 80년대의 추
억을 구성하는 가장 단단한 지
지이다.

집에서 키운 개 한마리만
팔려도 일주일쯤 울어대던
내 눈물이 진정 뿌려져야 할
곳을 찾고, 이적적인 사람과 서
클리 동정에 내 한 마음을 다
놓았던 가지런히 「서민」과
지난날 3년이었던 때문이다.

87년 6월방학, 7·8월 노동자
투쟁부터 6·10, 8·15통일투
쟁, 임수경 대표의 방북에 이르는
이제껏 나와 학동 상흔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가차없이 지켜
보고 그 안에서 휘둘러진 「인간
사랑」의 이용되는 「투쟁」을
가슴속에 새겨야 했다.

이렇듯 내 주변을 둘러 지
면 이기심의 성벽에 한나들
을 끼치고 독룡우치될 다
는 인간사랑의 거친 들에서 서
서서만 갈대들을 모아 다시
꽃을 지어는 일은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을 것일지도
같은 희망이었다.

이제 나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전진,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배부른 자를 더
욱 배부르게 하는 거대한 세상
을 투쟁의 열기로 다짐결하는
일임을 아يا할 수 있었다.

양귀옥에게 귀를 맡기고 코
너 양아씨만 보면 가슴이 설
레던 내 나쁜 기억의 전진앞에
를 끌어들이던 것 것은 얼마
나 큰 반향인지... 사람이 변
하는 것은 전진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개인을 떠난 투쟁을 위
한 변화일며 그 변화는 또 얼마
나 근사한 「전진」인가.

89년 마지막 겨울까지도 나
는 더 변화하고 싶다.
이기심의 잔재를 청소하고,
내 강황했던 변화의 결과물들을
모아 「투쟁」이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에 흔적을 쓰고 싶다.

80년대가 남겨준 추억과
변화 모두를 어슬렁거나 기억
하며 89년의 겨울을 바라보는
일은, 가슴속만 평온하고 조심
스러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겪어낸 50이 되
는 90년대이다. 마지막 20
후반을 위해, 내 인간사랑의
꽃을 위해, 이 겨울엔 한번
은오는 희색빛겨울을 눈여겨
보는 싸움이었을 것일지도
같은 희망이었다.

우리들의 쓰임새 (175) 첫

(내가 왜 이 것을 하는가?—라디오 대담중에서)
이것은 윤전 기사와 같다. 대담 내용은 보면 윤전을
친지(天賦)라고 한다. 따라서 「것」은 「이 윤전 기사
친지」하는 윤전을 가리킨다. 「것」의 사전적 의미는 「몸
을 눌러서 움직이는 일, 일을 해내는 노력, 행동」인데 「것」
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왜 그래?」에서처럼 비하(卑下)
된 처우를 가킨다.

오늘 무시하 살아온다 내일 다시 쓸게요
—11·3 오후4시 이문열에서—



긴 가을밤, 나는 오직 한말
만을 되뇌인다. 타는 목마름
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
의어 만세 —왕산 방송—

주제: 청년일기
일주일만 걸어도 노정권
걸어 버리는 건데, 「월
—이문열 젊은 오후—

조국을 위해 젊은 목숨바친
일살아에 한결 부끄러워 없
을 일에서 이는 바람에도 나
는 피로와 한다

—한경화과 성희—
다들 주제는 「내가 바라는
총학생회장」입니다.

청춘은 젊어서 좋다. 이 젊
음을 투쟁으로 불사르고 고
날도 한자 한다.
—왕산 반민취—

오늘도 잠치지 않고 무사하
긴.....
—G. 프락치—

신물김·신소자·신지원을 창조하는 락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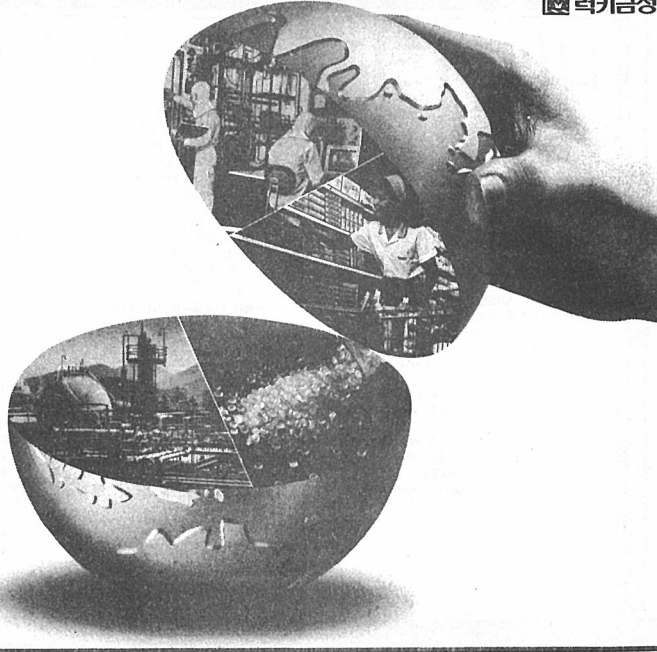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미래산업까지 — 락키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창조정신으로
「신소자」를 미래로 앞당기는 락키
우아한 화학공업을 선도해온 락키는 도교
창조자격을 통해 「세계의 창조화학사」로
상징한 락키 —
락키는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는 물론
무용·화학·공업·소재·전자·소재·소재·소재
제3세대 합성소재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물김, 신소제, 신지원을 창조한
미래정신을 앞당기기 위해 락키는 락키는
사업분야 「생활·산업자재」, 「소재·소재」, 「소재·소재」
기반정신을 표방하며 「IDEAL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활·산업자재
1947년 창간 「신지원」을 앞당기는 락키는
이와함께 국내화학공업을 선도해온 락키는
화학자재를 비롯한 각종 생활화학·화학·화학·화학
산업자재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제품,
유전공학을 이용한 화학 등 첨단제품 또한
수출입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재·소재
합성수지 기초원료와 고도의 석유화학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화학공업을 선도해온 락키는
화학·소재·소재·소재·소재·소재·소재·소재
락키는 첨단기술을 갖춘 화학·화학·화학·화학
나수공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화학공업의
상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락키